

欲 速 不 達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경제학**의 元祖로 일컬어지는 알프레드·마셜이 말한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새삼 음미되어지는 상황이다. 원래 이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인류사회가 당면하는 경제현상의 모순에 대해서는 뜨거운 심장으로 문제의식을 항상 날카롭게 하되 그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는 냉철한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인 代案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마셜의 이 명언은 최근의 南北韓교류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새해에 들어와서 남북한교류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뉴스들이 우리를 마냥 흥분시키고 있다. 특히 鄭周永회장의 북한방문과 금강산공동개발이야기는 우리들을 완전히 흥분시켜 놓았다. 「그리운 금강산」이 금방 우리 손안에 잡히는 것 같고, 덩달아 漢水이북과 동해안 땅값이 치솟고 있다.

40여년간 닫혀있던 南北韓門이 뚫어진다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으며, 꿈에도 소원인 통일의 계기가 잡힐지도 모르는데 누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하긴 최근의 북방정책 전개과정을 보면 흥분할만도 하다.

소련과의 교섭에서는 시베리아 개발계획이 나오고, 영사기능을 갖춘 무역사무소개설이 박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中國과는 교역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광객까지 왕래하는 세상이 되었다. 또 東歐쪽에서는 헝가리와 공식외교관계가 수립되는데 이어 유고·폴란드·東獨등 다른 공산권국가들과도 정치·경제·문화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 南北韓교류의 급속한 전진이다. 어느 틈엔가 南北韓 직교역의 항로가 열려 北韓産 석탄, 명태, 맥주, 그림, 우표까지 반입되었고, 鄭周永現代그룹 명예회장은 平壤에 가서 北韓당국자들과 만나 금강산개발계획, 시베리아공동진출방안에 합의하는 등 믿기지 않을만큼 큰 일을 해내고 돌아왔다.

이런 북방정책의 전개는 온국민에게 정부수립후 처음 맛보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 그런 충격은 그동안 권위주의체제 아래서 잔뜩 억눌려 있던 호기심을 사정없이 자극해서 온국민을 흥분시키고 들뜨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본격적인 南北韓교류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을 제정했고, 에너지정책당국은 앞으로 해외자원개발도 북방외교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철저히 통제되어 오직 한 목소리만 있는 체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아웅산테러와 KAL기폭파도 하루 아침에 해치울수 있는 사람들, 얼마되지 않은 외채를 갚지 못하면서도 뉴욕 마천루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어 올리려는 사고방식등,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를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일 뿐 그들 자체가 허물어지거나 무너져 내린

것은 분명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시간을 거쳐 저들에게 안착되었고,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신봉하고 있다.

『최근 南北韓의 움직임을 보면 北韓은 아무 것도 변하고 있지 않는데 변한것은 韓國쪽』이라고 꼬집은 日本의 어느 北韓문제전문가의 말은 우리가 마냥 들떠 있을 때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北韓은 韓國을 美國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역대 한국정권을 「파쇼 괴뢰」라고 부르고 항상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식민지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 행동해 왔다. 이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金日成이 매년 1월1일에 발표하는 신년사는 과거 1년간의 北韓의 내외활동을 정리하고 신년의 활동목표를 보여주는 北韓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다.

金日成은 89년의 신년사에서 남조선당국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연방제통일방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등 남조선에서 통일논의가 가장 고조되었다고 88년 정세를 평가하면서 95년까지 고려연방제통일을 목표로 세바르드나제 訪北후 공동보조로 투쟁하자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오는 92년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북한 군사력을 10만 이하로 감축시키자는 내용의 88년 「평화보장, 4원칙 및 포괄적인 평화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金日成의 고령화를 감안한 대남전략목표시한이 다가왔음을 시사한 것이다.

北韓은 10·26사태 직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제시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화과정을 대남 전략수행의 滿潮期로 보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北方교역은 민주주의와 골수사회주의(공산주의)와의 교섭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新데탕트다, 脫이데올로기다 해서 실상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듯한 수식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北方국가들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버릴 수도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한 것은 그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北方국가들은 문을 열되 필요한 만큼만 열고, 교류를 하되 필요한 만큼만 한다. 그들은 정치에도 외교에도 실리만 추구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욱 차분하고 냉철해야 한다.

사실 말이지 南北韓경제교류를 서둘러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니고 오히려 북쪽 사람들이다. 등소평의 개방노선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 때문에 北韓은 더 이상 폐쇄경제를 고집할 수 없게 되었고, 더우기 날로 가중되어가는 외채사정 때문에도 그쪽은 적극적인 외화벌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전개를 차분히 지켜보고 한발짝 물러서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欲速則不達」이란 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OPEC동향□

# OPEC 1월 산유량, 前月對比 300~400만 b/d 감소

베네수엘라의 Celestino Armas 석유상은 1월 OPEC 산유량이 12월보다 300~400만 b/d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업계의 추정에 따르면 12월 OPEC 산유량은 2,300만 b/d 수준이고 1월 산유량은 1,900~2,000만 b/d로 집계되고 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지난 11월 OPEC 총회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유국들이 쿼터이상을 생산

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분석가들이 밝혔다.

페르시아만 석유분석가들은 페만 6개국의 1월 생산량이 1,300만 b/d로 12월보다 300만 b/d 감소하였으나 이들의 쿼터 1,214.3만 b/d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등은 쿼터수준을 유지하였으나 UAE, 쿠웨이트, 카타르는 쿼터를 초과하여 생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